

파주시

금산리농요

문산 도당굿과 호영산 호대감놀이



금산리 농요

1. 전승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 유래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서북부 지방에 위치하며 보현산 자락에 자리잡아 아직까지도 격년제로 음력 동짓달이면 제관 5명을 뽑아 황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고 산치성을 정성껏 드리는 창녕조씨가 대성(大姓)인 유서깊은 고장이다.

고려시대에는 황해도에 거주했던 창녕조씨가 탄현면 대동리로 이주한 것은 17대조이며 이웃검산리로 들어온 분은 조선조 숙종 때인 10대조 조원봉(이조참판을 지냈음)이다.

일제시대에 금산리마을 사람들

끼리 공연단을조직,경 읽는 장면까지 연출하여 고양시에 원경갔을 정도로 예능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다. 금산리에 가서는 소리자랑을 말라는 옛말에 걸맞게 지금도 선소리꾼이 여러 명 생존해 있다.

예능마을인 만큼 농악잡이들이 두루 갖추어 있음은 물론,쇄납 제작 및 그 연주자까지 겸비해 있다.

조병주씨는 부친의 대를 이어 쇄납을 부는 사람이다. 젊었을 때 오촌당숙과 칠촌재당숙께 들리기만 하면 “이것을 좋아해 가지고는 못살아간다”고 쇄납을 깨뜨려버렸고 그때마



다 다시 만들어 붙었던 것이 오늘날 쇠납 제작의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3. 구성 및 내용

금산리 농요는 경기 서부지역과 황해도지방의 임진강과 한강을 사이에 둔 파주지방의 잘 보존된 농요로 매년 농사철이면 동민이 모여 일하며 부르던 노래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 장

농상기를 앞세우고 상쇠-부쇠-제금-징-북-장고-쇠납의 순으로 두레풍장이 나가고 그 뒤에 두레꾼들이 따른다.

2) 낙종고사

24절기 중 곡우가 되면 범씨를 낙종한다. 봄이란 낮이 되면 바람이 불어 식전에 낙종을 끝내야 하므로 몇 집이 모여서 품앗이하어 7~8인이 함께 일을 한다. 바지가랭이를 걷고 눈에 낙종을 하러들어가기전에 논둑에다 제물(북어, 막걸리)을 차려놓고 금년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 이는 동남아(東南亞) 낙종 의례 중의 하나로 주목되는 의식이다.

의례가 끝나면 품앗이꾼들이 추위를 이겨 낼 겸 술 한잔 마시고 눈에 들어가 떨어지는 간격을 조심스럽게 살피가며 낙종하는 동안 저쪽 들에서는 호리소로 논갈이하는 모습과 함께 저리소모는 소리도 들린다. 농악이 울리면서 모찌러 나간다.

3) 모찌기

찢네소리를 부르며 모를 찢는다.

- 가 사 -

모찌기가 끝나고 새참이 나와 잠깐 쉬는 동안 용두래질소리가 시작된다.

“새참들 다 자셨나? 자, 모내려 들어갑시다” 하는 외침과 함께 일렬로 늘어서고 용두래소리도 멈춘다.

4) 모심기

하날기로구나를 부르며 모를 심는다.

- 가 사 -

모심기가 끝나면 농악이 울리고 두레꾼들은 호미를 들고 애김매 채비를 한다.

5) 애김매기

애김은 한사람이 한 줄씩 맡아 장으로 매기를 하고 장구장단에 얹어 논김 양산도를 부르며 곧게 나갔다가 방아타령을 부르며 제자리로 돌아온다.

(1) 논김 양산도

- 가 사 -

(2) 방아타령

- 가 사 -

6) 삼동매기

호미를 내려놓는 동안 짧게 농악이 울리고 곧 삼동매기를 시작한다. 삼동은 곱매기로 뚝치며 맨다.

(1) 헤이리소리

- 가 사 -

(2) 자진난봉가

- 가 사 -

(3) 날니리소리

- 가 사 -

(4) 벌벌상사도야

- 가 사 -

(5) 몸돌소리

- 가 사 -

(6) 우야소리

- 가 사 -

(선) -자,여러 동갑네들 모찌러 들어갑시다-

(받) -네-

(받)

- 찢네해 찢었네해
모한춤을 찢었네해

(배)

- 설서얼 동풍에
긱으흔 비는 나리하고호
- 시화나 연풍에
님사겨서 노잔다하아아
- 세월아하 봄철아하
오고 가지를 말어라
- 청춘의 흥안이
다 늙어 가누나
- 찢네해 찢구나하
여기도 또한춤 찢었네해
- 새참이 나왔으니
자시구서 모내러 가세
- 새참 자시러 나갑시다 -
- 자, 새참들 다 자셨나
그럼 담배 한대씩 태구, 모내러 가야지
자, 모내러들 들어갑시다 -

- 예 -

(받)

- 허나 허나
하나알기로 구나
- 무정한 세월아하
오구우 가지를 말어라
- 금산리 호걸들
다 늙어 가누나하
- 세월이 가기는
화살결만 갈구오
- 청춘이 늙기는
물거품 갈구려
- 녹음 방초는
년년이도 오거현만
- 우리내 인생은
가면 다시 못오리다
- 서산에 지는 햇
뉘리서 금지허며 허어어
- 창해유수 흐르는 물
다시오기 어려워라 하아아
- 모내는 동관들
소릴 맞춰서 하여보세
- 모르을 다냈으니히
허나소리 그칩시다
- 자, 담배들 다 피웠으면 김매러 들어갑시다 -
- 예 -

(받)

- 에헤-헤헤-에헤
에헤,오호오호-
이일다-
오호오오

(배)

- 오늘날도
하 심심하니
양산도로나
불러를 보세혜에
- 양더러헉 땁사하안
흐르는 물은 감돌아 든다고
부벅루하 로호다하

- 오 한소래루다
긴 해를 보내니하아
방아타령으로
돌러를 보세혜에

(받)

- 에혜 헤- 헤혜요호오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나니가 난실 네해로구나
어이나누 방아가 좋-소

(베)

- 좋다 좋구나
달은 떠서 온다마는
임은 어이 왜 못오나
벽공에 걸린 달은
임을 응당 보련마는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양인이
에혜라 왜 생겨났나

- 좋다 좋구나
하늘 천자 따지 땅에
집우 자로 집을 짓고
날일자 봉창문
달월 자로 달아놓고
밤중이면 입을 맞아
별진 잘 숙에
에혜라 놀아를 보자

- 좋다 좋구나

오초동방 너른물에
오구가는 상고후선은
선풍에 뜻을 달구
북을 두리듬실 울리면서
어기히어차 닳감는 소리
원포호 귀버함이
에혜라 이아니란 마알가

- 좋다 좋구나
소리하는 동관네들
애짚을 다매었으니
방아 타령도 그만하고
호미자루는 제쳐놓고
두번,삼동 김매기에
어러리 타령으로
에혜라 돌려잡아 보자

(받)

- 에 - 에 혜
에허이 어허야
에 혜, 에엥 허이리
노호오야

(베)

- 에혜엥 어-허엥
어 허어이 어허야
어허러리 소리는
농사꾼의 소리리
- 에헿 허어-엥
어 허어이 어허야
장든 님 생각이
저리절로 나다하야아
- 에헿 허어-엥
어-○ 허어-엥
화란 춘성하고
만화 방창이라
- 에헿 허어-엥

어-○ 허어이 어허야
산천 경개로
구경을 가자아

●에행 허어-엉

어-○ 허어이 어허야
기화 요초는
난만중에

●에행 허어-엉

어-○ 허어이 어허야
꽃속에 잠든 나비
자취없이 날아든다

●에행 허어-엉

어-○ 허어이 어허야
어허리 소리로
긴 해를 보내나

●에행 허어-엉

어-○ 허어이 어허야
жат으나 난봉가로
돌리잡아 보세

(받)

●에헤 헤헤야

에-○ 해루와 흥구 좋다
어러 림마 디어라
내사라-앙아

(배)

●내님 다정타

속정 굿이 받아
이후에 남되면
후회 막겁이라

●바람아 광풍아

네가 불지마라
머리단장 곱게한것
앵클러 성클러 지누나

●이놈의 살림살이
헐등말등 헌데
울넘어 반넝쿨은
마루를 훨훨 넘는다

●술중에 뜨는 달은
잡힐듯 말듯 하구요
정든님의 마음은
알듯말듯 하구나

●난봉가루다
긴 해를 지나
오돌독으루다
돌려잡아 보세

(받)

●에- 넌리리
어리구 절사 말리러라
사람의 일천간장
에루와 다늑 - 이누나

(배)

●간곳 마다에
에루와 정들여 놓-고
이별이 잣어서
에루화 나 못살 겠구나

●연분홍 치마에
에루화 남꼴동 저고리
죽으면 죽었지
에루화 나 못입 겠네

●금순강산 삼천리
에루화 풍년이 오-니
한사발 두사발
에루화 포복 하누나

●임진강 가에도
에루화 포복새 울-고
이강산 삼천리

에루화 무궁화 피었네

- 정든님이 오실러건
에루화 호젓이 오시지
꿈속에서나 오락가락
에루화 장부간장 다죽인다

- 열두주름 치마폭
에루화 가리거리 뻗친 설음
초생달이 기울면
에루화 줄줄이 눈물이라

- 시냇가 빨래소리는
에루화 또드락뚝딱 나는데
아롱다롱 버들잎이
에루화 정든님 얼굴 가리네

- 날리리 소리로
에루화 긴해를 지나
사암사 소리루다
에루화 돌려잡아 봄시다

(받)

- 네엘 벨벨 사암사 도야

(매)

- 서마지기 논배미가
- 반달만큼 남았구나
- 오늘 날에 상사가 난계
- 무엇이 그리워 상사라 더나
- 오늘날에 이눈을 매여
- 일년하고 열두달에
- 삼백하구두 육십오일에
- 풍작 들라고 이노랴 허나
- 상사소리로 긴해를 지나
- 몸돌소리로 허여 봄세

(받)

- 에이여라 몸돌

(매)

- 몸돌 소리에 눈줄어 든다
- 길다랗구나 장대몸돌
- 실쭉쭉 말코몸돌
- 동그랗다고 띄리몸돌
- 몸돌소리를 그만두세

(받)

- 우후야라 훨훨

(매)

- 우야 소리에 새모여 든다
- 말잘허는 앵무새며
- 춤잘추는 학두루미
- 웃덕 새두 날어를 오고
- 아랫덕 새도 훨날러 오네
- 딱다구리는 남구를 잘파
- 나막신쟁이루 돌려놓고
- 제비란 늪은 머리가 고우니
- 평양기쟁으루 돌려놓고
- 까치란 늪은 남구집 잘지어
- 목수쟁이루 돌려놓고
- 황새란 늪은 다리가 기니
- 우편소 배달루 돌려놓고
- 공작새란늪은 문채가 좋으니
- 비단장수로 돌려를 보고
- 기러기 훨훨 밤울새 떨렁
- 높이뻗다 종달새며
- 알이 기누나 굴뚝새며
- 구만리 장천에 대봉새가
- 높이 떠서 훨훨 나른다
- 제비는 어매루 날아를 가고
- 이새 저새 다날라 가고
- 먹새란 늪만 남았구나

-우 야-

문산 도당굿과 호영산 호대감 놀이

1. 전승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2. 유래 및 해설

1) 유래

일반적으로 도당굿은 주고 경기도 지방에

서 행해지는 마을굿을 일컫는다. 파주시내에도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지만, 특히 문산 도당굿은 역사가 깊고 규모 면에서 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마을굿과 달리 호영산 호대감놀이라는 굿놀이가 수반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놀이는 과거에 호환(虎患)을 입은 마을에서 행하는 절차로 파주시 일대 다른 지역의 도당굿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문산포만이 보존



전승되고 있다.

문산 도당굿이 그 규모가 크고 성대했던 것은 지리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주군사(坡州郡史)(1984, 과주군)에 의하면, 임진강을 끼고 있는 문산포는 수운(水運)의 중심지로 주운(舟運)이 발달하여 인근 황해도, 고랑포, 연천 등지에서 오는 조기배와 지방 산물의 집산지였으므로 이곳은 늘 황포돛대가 끊일 사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곳에 집결된 물산은 대시장을 형성하였고 상권의 형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주변적 환경에서 문산 도당굿은 마을 주민들은 물론 각종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로써 마을의 평안과 함께 풍농, 풍어, 시장의 번영 등을 기원하게 되었고, 자연 그 규모는 성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굿판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구름떼 같이 모여들어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고, 한편에서는 난장이 서고, 풍물놀이 광대놀이 씨름 그네 활쏘기 등의 놀이판이 벌어져 축제의 흥취를 돋우었다 한다. 행사는 5~7일간 계속되었으며 이때 모이는 상인이나 구경꾼들은 인근의 김포 강화 개풍 장단 개성 등지에서 모여들어 문산포 일대는 대성시를 이루었다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굿 또는 난장굿이라고도 불리는 별신굿이 시장의 경기부흥책의 한몫을 담당해왔듯이 문산 도당굿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문산 도당굿은 6.25 이후 남북 분단과 내륙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포구의 쇠퇴와 함께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 규모가 자연 축소되고 난장과 각종 놀이도 사라지고 현재는 당굿만이 지속되고 있다.

문산 도당굿은 무속에 대한 탄압이 심하던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으며, 한때 1953~1976년 사이의 18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으나 동네에 여러가지 변고가 생겨 1977년경 복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산 도당굿과 문산 도당(원당, 본향)이 언제 생겼는지 그 역사는 확실하지 않고, 그 유래와 관련된 설화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1) 설 화 ... ①

옛날에 (임진왜란 때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병자호란 때라고도 함) 한 장군이 문산 포구에서 전장에 출전을 했다. 출전하면서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쟁에서 이겨 살아 돌아오면 배에 흰 기를 꽂고 돌아올 것이고, 죽어서 돌아오면 배에 빨간 기가 꽂혀 있을 것이지요.” 하고는 흰 기를 꽂고 출전하였다.

장군이 떠난 뒤 부인은 산(현재 당이 있는 부근으로 옛날에 그 밑은 절벽이었고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함)에서 매일 정한수를 떠놓고 장군이 승전해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였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장군 부인이 기도를 하다 앞을 바라보니 포구 저쪽에서 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장군의 배임을 알아차린 부인은 얼른 뱃기부터 쳐다봤다. 그것은 빨간색이었다. 부인은 낙망하여 “아, 장군께서 돌아가셨구나” 하고는 곧바로 절벽 아래 강물에 몸을 던졌다.

장군이 도착하여 부인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타고온 배의 기를 쳐다보니 기가 빨갱게 물들어 있었다. 전장에서 격렬하게 싸우다보니 피가 튀어 기가 빨갱게 물이 든 것을 모른 채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다. 장군은 “아차 이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하고 자책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장군의 부인이 죽은 뒤 문산포에는 고기잡이배가 파선되고, 물에 사람이 빠져주고, 동네에 여러가지 사고가 나는 등 풍파가 잦았다. 동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장군 부인의 원혼(冤魂)때문이라 여기고 그 혼백(魂魄)을 달래기 위한 곳을 벌였다. 그런 뒤 배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니고 문산 사람들이 편안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산에서는 3년마다 한번씩 도당굿을 크게 벌여오고 있다고 한다.

(2) 설 화 ... ②

어느해 큰 홍수가 저서 짐더미 같은 게 포구에 떠들어왔다. 건져보니 그 속에는신상(神像)과 같은 유물(遺物)들이 들어있었다. 주민들은 이를 신성한 물건이라 여겨 당집 안에 모시고(또는 당을 지어 안에 모시고) 받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의 도당은 떠들어온 당 혹은 ‘물당’이라고도 부른다.

뱃사람들이 고기잡이 나갈 때 이 곳에 배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치성을 드리고 나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

2) 해 설

위의 설화① 설화②의 내용은 문산 도당굿과 도당의 유래를 각각 보여 주고 있다.

설화①은 장군 부인이 죽은 뒤 마을에 우환이 잦아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 곳을 시작했다는 내용에서, 이때부터 문산 도당굿이 비롯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그 시기는 막연히 ‘옛날에’라고 하는가 하면 ‘임진왜란(1592-1598) 때’ 혹은 ‘병자호란(1636-1637) 때’라고도 하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대전란이 있었던 16~17세기에 문산 도당굿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도당의 유래에 있어서도 장군 부인이 치성을 드리던 곳이 원래 당이 있던 자리인지 아니면 장군 부인이 그곳에서 죽은 뒤 도당굿을 벌이면서 당이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설화②에서는 당의 형성 과

정이 보다 구체성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의 형성 유래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하나가 홍수에(또는 물에) ‘떠들어온 당’의 유형이다. 예컨대, 강릉 남문동 ‘짐대백이 서낭’ (현지에서는 진또배기 서낭이라 함)도 설화②와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곧 대관령(일설에는 함경도 해안)에서 떠내려온 짐대가 강문 해안에 닿다 마을 사람드러이 이를 건져 세우고 제사를 올렸더니 동네가 번성하여 계속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보면 설화②는 설화①보다 선행적인 당의 형성 과정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재앙을 가져다주는 여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그 혼령을 동신(洞神)으로 모셔 마을굿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동제 또는 마을굿이 비롯되는 일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해안 지방과 같은 해안 지방에서 그러하다. 이 경우는 대개 동제(또는 마을굿)의 발생과 당의 형성과정이 동시적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화①은 문산 도당굿과 도당의 동시적 발생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달리 문산 도당굿이 생기기 전에 이미 당(산신당)이 존재한 것으로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설화 1에서 장군 부인이 치성을 드리던 원래부터 있던 당으로 신목(神木), 곧 당나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가장 원초적이고 일반적인 당의 형태는 자연 그대로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당이 있는 주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오래된 참나무 신목이 있었고 (삼년 전 쪼에 죽어 없어졌다), 매년 가을에 산치성을 올리는 사실에서도 그러한 가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유추와 가정을 종합해볼 때, 당나무를 신체(神體)로 자연적인 신당(산신당)의

모습을 유지하다 설화②의 신상을 당집에 모시고 제의가 행해졌으며 설화①의 장군부인의 원혼으로 어로(漁撈)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에게 번고가 생기자 도당굿이 시작되었다는 하나의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설화①의 도당굿과 도당이 동시에 생긴 뒤에 설화②가 나중에 첨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유래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지 않나 추정해볼 따름이다.

현재 도당은 당집으로 되어 있으며 안에 옛날에 있었던 신상은 없어지고 근래에 새로 만든 임경업장군, 관우장군, 결립, 백마장군, 글문도사, 산신, 창부, 삼복제석, 칠성, 최일장군, 별상, 오방신장, 불사할머니, 옥황상제, 선녀부인, 중국장군, 대신할머니 등 17개의 무신도(武神圖)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당 옆 한쪽 구석에는 짚주저리 형태로 된 살롱대감을 모셔 놓았다.

3. 구성 및 줄거리

문산 도당의 제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해마다 지내는 산제(山祭:산치성)이고, 다른 하나는 3년에 한 번씩 벌이는 도당굿이다. 산제는 음력 10월에 택일하여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제관을 선정하며 유가식(儒家式)으로 지낸다.(근래에는 도당 부근에 있는 절에서 지낸다.) 도당굿은 음력 3월에 날을 받아 벌이는데 3일간 한다.

제의 비용은 각 집마다 추렴하여 충당하며 일부는 외부의 찬조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매번 어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를 낸다. 제수(祭需)는 다른 제의와 비슷하며 희생(犧牲)으로 통돼지 한 마리를 쓰는데 호영산 호대감놀이 에는 개를 희생으로

쓰는 점이 특이하다.

문산 도당굿의 절차는 중부지방 마을굿과 대동소이하다. 맨먼저 당맞이부터 시작되는데 이 절차는 다른 곳에 비해 그 규모가 커서 지금도 하루가 걸린다.

남녀 서낭을 상징하는 참나무와 소나무를 각각 든 대잡이 2명을 선두로 그 뒤에 대동기, 농상기, 오방기, 풍물꾼(농악대), 무당, 약사, 구경꾼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행진하여 문산 일대 7군데에서 당신(堂神)을 모셔온다. 옛날에는 이때 말을 타고 갔는데 실로 그 광경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당맞이를 해오는 곳은 문산읍 사목리(반구정 부근), 정박골, 강다리, 하동 사거리, 상동, 상동 사거리, 창동 사거리 등 7군데이다.

당맞이가 끝나면 이어서 부정거리, 대감거리, 제석(칠성)거리, 장군거리(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호구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서낭거리, 텃대감거리, 결립거리, 지신거리, 맹인거리, 군웅거리, 뒷전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보통 16거리가 행해진다.

호영산 호대감놀이는 군웅거리 끝에 행해진다.

호영산 호대감놀이

1. 전승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2. 유 레

1) 놀이의 배경과 목적

문산(汶山)은 지명에서 나타나듯이 강과 산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옛날에 이곳은 산이 깊고 강이 인접해 있어 산짐승들이 많았으며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일이 많았다.(지금은 강에 제방을 쌓고 산기슭까지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옛날에는 현재 도당이 있는 부근에 집이 하나도 없었고 산 밑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특히 호랑이가 많아 사람을 해치고 가축을 물어가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호영산 호대감놀이를 하게 되었다 한다.

이 놀이에서 ‘호영산’이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의 넋을 말한다. 이 혼령은 원한귀이므로 여기 저기 아무데나 짐적거리려 탈을 일으킨다. ‘호대감’은 호랑이를 다스리는 신령으로, 호환(虎患)에 간 사람들의 넋을 달래어 탈을 막고, 호대감에게 희생(犧牲)을 바쳐 즐겁게 놀려서 동네가 편안하고 호환을 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마을에서나 다 이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의 피해를 입은 마을에서만 한다.

2) 희생 설화

호영산 호대감놀이의 희생으로는 개 한 마리를 사용한다. (현재는 개 머리만 쓴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 대신 개를 잡아서 호대감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개는 인육(人肉)을 상징한다. 여기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도당굿 날을 받아 놓고 굿 준비를 하면 3일 앞두고 저절로 동네 개 한 마리가 들어온다. 산에 올라와서는 빙빙 돌아다니며 근방에 버리는 음식을 좇아먹고 가지를 앓는다. 못 들어오게 때려 쫓아버려도 도로 들어와서 나무 밑에 턱 자빠져 있거나 한다. 그러면 개를 나

무에 목을 매어 잡아서 산 어딘가에 몰래 파묻어 버린다. 그런 다음 호영산 호대감놀이 때 호대감으로 하여금 이 개를 찾게 한다.

지금은 산을 파고 집이 들어서고 해서 산의 명기(明氣)가 없어져 개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사서 쓰는데 고기는 먹고 머리만 파묻는다.

3. 구성 및 줄거리

호영산 호대감놀이는 군용거리 끝에 군용배웅하면서 하는 절차로 본향산(도당이 있는 산) 위에서 행해진다.

진행 과정은, 당에서 군용할아버지가 소첩을 데리고 춤을 추고 선막둥이와 후막둥이가 익살을 부린 뒤 산 위로 대호사냥을 나간다. 이때 풍악이 울리면서 군용할아버지, 소첩, 대동기(농상기), 오방기, 풍물패, 무당, 악사 등의 행렬이 당 뒤로 해서 곧바로 산 위로 올라간다(옛날에는 당에서 밑으로 내려와 마을을 빙돌아서 하동 뒷산으로 해서 올라갔다 한다). 산 위에서는 대호사냥, 도액(度厄), 군용 공수, 호영산 호대감놀이의 순서로 굿놀이가 진행된다. 본과장인 호영산 호대감놀이는 대사(臺詞)가 없이 행위로만 하는 무언극(無言劇)으로 연희된다.

호영산 호대감놀이의 등장 인물과 대본은 1992년 4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문산읍 문산2리 하동에서 있었던 문산 도당굿의 굿놀이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현재 사용되지 않은 탈과 당시 연희 때 누락된 부분(연희자들이 미숙하여 제대로 손이 안맞아 빠진 부분이 있었음)은 전순녀 만신(여, 71세, 군용할아버지 역 담당)의 도움을 받아 보충하였다.

1) 등장인물

호영산 호대감놀이에 등장하는 인물은 군옹할아버지, 소첩, 호대감, 선막둥이, 후막둥이 등이다. 옛날에는 호랑이와 어릿광대 한 두 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탈은 나무 혹은 바가지로 만들었다고 한다. 과거에 이 놀이에서 사용된 탈과 복색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전순녀 만신이 6.25전에 본 것을 토대로 하였다)

■ 등장인물

군옹할아버지

탈: 눈은장군 눈처럼 길쭉하게 위로 지켜져 있으며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점잖은 모습이다.

복색: 군옹거리에서 입던 홍철력에 빗갓(홍갓)을 쓰고 입에는 담뱃대를 물며 왼쪽 어깨에 활을 메고 왼손에 화살을 든다.

소 첩

탈: 탈을 쓰지 않는다.

복색: 각시옷(평복)에 창옷(빨강치마)을 뒤집어쓴다.

선막둥이

탈: 남자 형상의 탈로 익살스러운 모습이다.

복색: 평복차림이다.

(청괘자 혹은 대감옷이라고도함.)

후막둥이

탈: 남자 형상의 탈로 익살스러운 모습이다.

복색: 평복차림이다.

(빨강치마 또는 대감옷 이라고도함.)

호대감

탈: 탈 대신 베형겉으로 눈 있는데를 가려 아래만 보이게끔 해서 쓰고 그 위에 지푸라기(또는 원세끼)로 칭칭 감아 묶는다.

복색: 평복차림(만신옷)

호랑이

탈: 이빨은 무는 듯한 무서운 형상이다.

복색: 호랑이처럼 얼룩덜룩한 짐작이 옷(현재 없음)

어릿광대(1)

탈: 보통 남자탈을 썼음

복색: 평복차림

어릿광대(2)

탈: 연지근지 짝은 각시탈

복색: 각시 옷차림

2) 대 본(臺本)줄거리

(1) 제 1과장 군옹할아버지·소첩 과장

군옹 배웅하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당에서 하는 놀이이다. 풍악이 울리면 군옹할아버지가 소첩을 옆구리에 끼고 풍악에 맞춰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발을 맞춰 춤을 춘다.(안고 추고 지고 추기도 한다.) 한동안 춤을 추다가 군옹할아버지가 막둥이들을 부른다.

군옹할아버지 : 선막둥아, 후막둥아~!(큰소리로 길게 부른다.)

선막둥이·후막둥이 : (달려오면서) 네~에~ (길게 뽀으며 끝을 울려 대답한다.)

군옹할아버지 : 이제는 오냐 당 마치고 군옹을 모시고 놀러간다.

(소첩을 옆에 켜다.)

선막둥이·후막둥이 : 네~에~

군옹할아버지 : 선막둥아, 후막둥아~!

선막둥이·후막둥이 : 네~에.

군옹할아버지 : 여기 말 없느냐? 거, 말좀 이리 갖다 놔라.

선막둥이·후막둥이 : 네~에.(쌀 한말 든 나무말을 갖다 놓는다)

선막둥이 : (군옹할아버지를 말 위에 앉히며) 군옹할아버지, 여기 앉으셔서 담배나 한대 피십시오.

군옹할아버지 : 오냐~(나무말을 타고 앉으며 소첩을 옆에 앉힌다.)

후막등이 : (장죽을 갖다 구웅할아버지에게 주고는 불을 붙여준다.)

구웅할아버지 : (담배를 뽕뽕 피워댄다.)

(이때 막등이들이 와서 구웅할아버지를 가운데 놓고 뽕뽕 돌면서 번갈아 장난을 친다.)

선막등이 · 후막등이 : 구웅할아버지, 구웅할아버지~!

구웅할아버지 : 왜 그러느냐 ~ (천천히 위엄있는 어조로)

선막등이 : 구웅할아버지 소첩 내가 데리고 살랍니다. (소첩의 손목을 잡으려 한다.)

구웅할아버지 : 안된다. 이놈. 내 마누라다. (막등이들에게 호통을 쳐 쫓아버린다.)

후막등이 : (쫓겨갔다가 다시 와서) 구웅할아버지는 마나님이 있으니 그 첩을 날 주세요. (다시 소첩의 손목을 잡아 당긴다.)

구웅할아버지 : (못 빼앗아가게 막으며) 에, 이놈. 고안놈들 같으니라구. 내 마누라를 왜 빼어가느냐, 버르장머리 없게 소리. (엄한 소리로 막등이들을 나무라며 쫓아버린다.)

선막등이 : (쫓겨갔다가 다시 와서) 구웅할아버지 소첩 못 데려가게 하면 할아버지 똥구녕에 붙놓는다. (태징을 구웅할아버지 엉덩이에 대고 방울로 땀을 닦는다.)

후막등이 : 구웅할아버지 똥구녕에 붙났네, 붙났네. (뽕뽕 돌면서 어르고 놀린다.)

선막등이 : (계속 태징을 막 닦아친다.)

구웅할아버지 : (화가 나서) 옛기놈들, 에이 이놈들, 이놈들. 구웅할아버지 뒤에 붙놓으

면 이놈, 내가 타서 죽으라고 붙놓냐? 에이 고안놈들 같으니라구. (호령을 냅다 하면 막등이들이 쫓겨간다.)

후막등이 : (다시와서 태징을 구웅할아버지 옆구에 대고 방울로 문지르면서) 구웅할아버지 밤해드릴려고 우리가 술 가십니다.

구웅할아버지 : 에이놈들, 이놈들(막등이를 쫓아버린다.)

선막등이 : (다시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기 (손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아주 큰 대호가 있는 것 같으니 대호사냥을 가십니다.

구웅할아버지 : 오냐. 대호사냥을 가시자. (소첩을 데리고 일어서 나간다.)

선막등이 · 후막등이 : (냅다 쫓아나가면서)

선막등이 : 구웅할아버지, 구웅할아버지! 내가 먼저 대호를 잡겠습니다.

후막등이 : 아네요, 내가 먼저 잡을 겁니다.

구웅할아버지 : 에이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암만 재주가 좋아도 이놈아, 구웅할아버지가 대호 잡지 너희들이 무슨 대호 잡느냐? (호령조로)



풍악이 울리면서 일행은 산 위로 행렬을 지어 올라간다. 맨앞에 군웅할아버지가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왼쪽 어깨에 활을 메고 왼손에 화살을 들고 소첩을 데리고 춤추며 가고, 그 뒤에 대동기·오방기가 가고,이어서 풍물패·무당·악사·구경꾼들이 뒤따른다. 옛날에는 행렬이 당 밑으로 내려와 마을을 한바퀴 돌아서 하동 뒷산으로 해서 산 위로 올라갔으나 지금은 당에서 곧장 올라간다.

(2) 제 2과장 · 대호사냥

산 위는 널찍하니 경사가 완만하다.

행렬이 모두 올라온 뒤 선막등이와 후막등이가 부엉이(닭)를 이리저리 놀린다.

부엉이는 잘 나는 암탉으로 대신하며 발목에 긴 끈(새끼)을 매어 날린다. 부엉이를 날리는 것은 대호의 행방을 찾기 위한 것이다. (풍악은 처음에 느린 장단으로 장구를 쳐주다가 나중에는 제금·피리 등도 함께 연주한다.

군웅할아버지 : (풍악이 멈추고)

선막등아, 후막등아~!

선막등이 · 후막등이 : 네~에.

군웅할아버지 : 어느 쪽으로 대호가 있을 듯하나?

선막등이 : 저기 저쪽 하동 뒷산에 (손으로 가리키며) 있을 듯 합니다.

군웅할아버지 : 대호면 부엉이를 잘 날려봐라.

선막등이 · 후막등이 : 네~에. (둘이 서로 먼저 부엉이를 날리겠다고 다툰다.)

선막등이 : (부엉이를 잡으며) 내가 먼저 잡는다.

후막등이 : 아니야, 내가 먼저 잡는다.

(서로 겨룸질을 해가지고 후막등이가 먼저 부엉이를 날린다.)

선막등이 : (부엉이를 잡아 대호가 있을 만한 쪽으로 멀리 날린다. 부엉이가 날아가는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가 부엉이가 멈추는 것을 보고 군웅할아버지에게 달려간다.)

군웅할아버지, 군웅할아버지!(습찬 소리로)

군웅할아버지 : 왜 그러느냐~?

선막등이 : 내가 저기(구체적인 지명) 가서 (손으로 가리키며) 부엉을 날리다 보니 네 부엉이 큰 대호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군웅할아버지, 어서 저 대호를 잡으십시오.

군웅할아버지 : 어디다 잡아왔느냐?

선막등이 : 저기(손으로 가리키며) 뒷산에 있습니다.

군웅할아버지 : 오냐. 알았다. 내가 그럼 대호 하나를 못잡는단 말이냐. (아주 난척하고 한쪽 눈을 찌그러 감고 대호가 있는 곳을 향해 활을 당겨 화살을 쏜다. 여러번 쏜다. 화살을 다 쏘면)

동네사람들 : 대호 잡았다, 대호 잡았다. (큰 소리로 고함치며 기뻐 날뛴다.)

군웅할아버지 : 선막등아, 후막등아~!

선막등이 · 후막등이 : 네~에.

군웅할아버지 : 대호는 다 잡아왔으니, 너희들이 찾아오너라.

선막등이 · 후막등이 : 네~에.

옛날에는 동네사람들이 만신이 대호를 찾나 못찾나 보려고 만신들 몰래 통돼지를 대호라 하여 감추어 놓고 찾게 했다 한다. 만신들이 얼마나 영검한가를 시험한 것이다.

지금은 돼지를 숨겨놓고 찾게 하는 과정은 없다.

■ 도 액

풍악이 울리면서 군웅할아버지가 복숭아나뭇가지로 만든 활에 썩대로 만든 화살을 꿰어 사방팔방으로 화살을 쏘는데 일곱 화살을 쏜다. 활을 지은 뒤 신칼을 삼시사방으로 던져 점을 친다. 화살을 여러 곳에 쏘는 것은 동서 남북 곳곳에 있는 동네 액운을 없애고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다.

■ 공 수

풍악이 멈추고, 군웅할아버지가 방울을 흔들며 공수를 준다.

외살룡군웅 내살룡군웅
 양위양산에 본향군웅 아니시라
 이도당에 도당군웅
 상산은 본향군웅이다.
 우리 군웅 마누라 수위에서 예~오냐.
 살을 어드베로 지으랴.

장구쟁이 : 베, 물 아래 대양바다 적두살로 넘기소서.
 어, 오냐~
 우리 군웅마누라 살이
 물 아래 대양바다 적두살로 넘길 적에
 한살에는 씌내고 두살에는 막아다가
 세살에는 의주 월가으로 오냐~ 소멸하신다.
 문산본향에 하동이나 증동이나 오냐가서
 어~상사동네 오냐
 열군웅에 뜬군웅에 후환은 재난군웅~
 모든 나쁜 군웅은 오냐가서 물 아래 적두살로 넘기시고
 아무쪼록 오냐~
 문산포에 본향 안에 백성들아~(주민 : 예~)
 구엽구나 반갑구나. 이번에 우리 가서 군웅 할아버지 놀으시구.
 아무쪼록 오냐 ~
 가중마다 진중마다 밤이면은 불천 가중 낮이면은 내나는 가중들
 물추념에 호추념에 다려가서~
 이번에 상산놀이 부군놀이
 도당놀이 오냐. 우춍하구 대우하시구,
 여러들 자손들 곱게 나게 도와주시구,
 우리 모두 오냐 여러들 세대주들이라~

동서남북 사방팔방 넘나들구 맹길지라두
 액(악)인은 물러주구 선인은 성불허구 귀인은 다가들게 도와주시구,
 원 풀어 도와주고 한 풀어 도와주시나~
 어찌 아니 구여우시라, 어찌 아니 반가우시라.
 이번에 이렇게 모두 ~
 상당에서 오냐 도당놀이 상산놀이 우춍하구 불그더니, 오냐 가서 3일만에 ~
 이제는 군웅배웅 대령허구
 어~당에 내려와서
 모두 서낭 맞춘 것도
 오냐. 물 아래 대양바다로 나 당기시고
 우리 군웅살도 오냐 대양바다 물 아래 적두살로 넘겨놓고(주민 : 예)
 아무쪼록 문산 본향에 편안하게 도와주시마(주민 : 예)
 자손들 이렇게 시절이 산란하고
 해운이 분분한 시절에
 모두 객지에 나가 있는 자손이나 외국에 가 있는 자손이나 타국가 있는 자손이며
 나라에 나가 있는 자손 군사들이냐~.
 이 도당에 오냐 우리 여러들 군사들이냐~
 오냐~
 아무쪼록 이렇게 문산 본향에서 우리 여러 백성들이 물추념 호추념해서 동네도 편안허구 오냐가서 문산 본향도 편안허구
 나라도 편안허구 국가도 안녕하시자구~
 이 정성을 오냐 국가가 안녕하시구 태평성대해야.
 우리 백성들도 편안허단다~.
 그러니 어찌 아니 구여우시라~
 이번에 구여움 이만큼 받으시고,
 이렇게 오냐 상산에 올라와서
 군웅배웅 대령허구~
 아무쪼록 우리 노인 기주들
 노인 오냐가서 한탄(?) 할매 기주들

자손에 걱정 없고 노후에 근심없구
 오나~ 모진 홍역을 다 물리쳐 도와주시걸랑
 첫째는 우리 박씨에 오나 우리가서 이장이
 라(이장을 향해서)
 동네전 일을 보시구 방네전 일을 보시구
 (이장 : 네,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상소임 하소임 증소임이나
 이번에 물추념 호추념에 (이장 : 네.네)
 얼마나 가증마다 땀기시느라구 아니꼬운
 일 많고 속씩는 일도 많구
 (이장 :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혼자 먹고 부자되고
 증소임이 혼자 먹고 부자되고
 하소임이 혼자 먹고 부자되느냐.
 여러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서 요나 시주를 땀기구 화주를 땀기구
 물추념 호추념 땀기는데
 진짜가서 어찌니 말두 많구 탈두 많았구나,
 (이장 : 네, 네네.)
 그렇건만나서 낭중에라두
 너희들 오나가서 이번에 이런 도당놀이 허
 면은 다 자손들 편안허구
 동네가 편안허구 가증이 편안하자구 허는
 거지 날 누가 위해서 허느냐!
 (호령조로)(이장 : 네.네네.) 잘 먹었네 못
 먹었네 하는 소리들 내가 삼재를 준다. (호
 령조로)(이장 : 어유, 화내시면 안돼요.)
 고얀 이녀석들.
 (말로) 그러니 오나가서 이거 다네일이야, 응?
 이게 어느 누 사람은 잘되고 어느 새(?) 사
 람은 망하랴구 하나?
 다 물추념 호추념일 때 십원을 내도 정성이
 구 일원을 내도 정성이야.
 (이장 : 네, 네네.) 응?(호령조로) 그러니
 우리 오나 박씨 이장, 진짜 애썼어. (말로)
 (이장 : 아니 뭐, 저가 이게 주민들이 다 해

줘가지구 다 애쓴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응?
 그 선도자가 있어야 후도자가 있게 마련이
 야.(이장 : 네, 네.)
 누가 설득을 허는 사람이 있어야지 괜히 가
 만히 앉아 있으면 아, 도당굿허랴구 돈 갖
 다주는 놈 있냐? 가 달라구 그래도 그래.
 “이우, 맨날 굿을 해도 구렁구 그래”(다른 사
 람이 하는 말로 흉내를 내며)(관중 : 웃음)
 이런 일두 많았어 우리 군웅할아버지 속이
 면 괜히 큰일나, 별점을 내려.(이장 : 그저
 군웅할아버지만 믿습니다.)
 너희들이 오나가서 잘되구(이장 : 주민들이
 다 잘되구, 그러니까 잘 치뤘니 못치뤘니 그
 런 얘기 없게 좀 해주세요.)
 오나~ 그러면 상벌을 주지. 인제 정성이
 면, 옛날에 시방 이렇게 백성들이 모두 이
 게 도당님 저기, 땀기가 없어져서 그렇
 지.(이장 : 네.)십원을 내도 정성이면 정성
 쫓 허구, 먹자구 허는게 아니야.
 자손들 다 편안허구, 응? 나라에 나간 자
 손들 편안히 잘 땀겨 오구,
 응? 나라에 나간 자손들 편안히 잘 땀겨오
 구, 응? 차를 끌구 땀기는 자손들도 잘되
 구 허자고 하는 거지
 아, 먹자구 굿해?(크게 나무라는 말로)
 (주민 : 몰라서 그렇죠.)(주민 : 아이, 그거
 뭐 걱정이예요, 왜 그러세요.) (관중들이
 웃는다.)
 그리고 오나~
 (말로)이 도당은 아직도 좀 날씨가 거칠고
 오나가서 आयु, 조신히구는 육을 먹지 말아
 요, 응?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귀설이 잇고
 광풍이 날듯하다. 그러니깐 가서~아무쪼
 록 그런 일 없이 도와주시구
 이번에 모두 다시

꽃피어 꽃맛이 잎피어 잎맛이
진달래 화전맛이라.
우리 도당놀이 상산놀이 부군놀이 받았으니
설산에 매화본듯 눈진산에 꽃본듯 반갑구
귀여운 정성이구나.
어~범가에서 하교가 나렸느냐,
국가에서 천냥이 나렸느냐.
어~하하하하(너털웃음으로)
상당주 중당주 하당주야,
우리 착한 이장님.
(말로) 아따 젊은 사람이 쟁쟁 오냐.
그래도 잘 되려니까 내 다 복 많이 준다.
(이장 : 네,네.)
귀설 없이 해주마(이장 : 네,네.복 주시는
것보다 귀설 없게 해주세요.)
이십년 이장 노릇해라. (이장 : 아유, 뭐.)
어~하하 그러면 그러느냐구~
이번에 이렇게 도당에서 상산에서 굿어보시니
반갑구두 귀엽구~
(말로) 이번에 이제 한 삼년 있다가 그때두
거창하게 잘 해라, 응?
(이장 : 네,네네.)
오냐, 아무쪼록 우리 가증마다 진중마다
명두 주구 복두 주구
호호마다 진중마다 오냐.
예수두 라신이구 미신두 예수란다
예수 믿는 가증두 돈은 안냈어두 그 가증들
도 다 편안하게 도와주마.
(이장 : 네,네네.)
(말로)나는 예수무당이냐 아무 소리 마라.
(관중들이 웃는다.)
그러니 가서~
이번에 이렇게 모두 상산에서 놀으시구
어~귀엽게 받으시구
우리 오나가서 어~호영산 호대감아 ~
대호는 다 잡아서 갔다왔으니 어서 이젠 호

대감을 놀아라.

(공수가 끝나면서 격렬한 무악(巫樂)이 울
린다.)

(3) 제3과장 호영산 호대감놀이

(느린 장단으로 천천히 풍악을 쳐준다.)

이 놀이의 본 과정은 호대감만이 등장하며
대사가 없이 두언극으로 행해진다.

호대감이 산 저편에 엮드려 있다가 미리 숨
겨놓은 개대가리를 찾아나선다. 호랑이 시늉
을 하며 두손으로 흙을 후비고 파 헤집으며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닌다. 한참동안 헤집
고 다니다가 드디어 개대가리를 찾으면 그것
을 입으로 물고 사라진다. 만일 호대감이 개
를 못찾으면 산에 올라온 주민들이 함께 찾
아준다고 한다. 개를 못찾으면 영검이 없다
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호대감 노
는 사람을 골려주느라고 감쪽같이 물어놓아
온종일 찾는 수도 있다고 한다.

■ 도 무

(격렬한 무악이 울리면서)

호대감이 개머리를 찾은뒤 임진강 쪽을 향
해서 도무(踏舞)한다. 그리고나서는 호대감
대령한 날돼지고기(원래는 개 머리)를 물어
뜯어 삼시사방으로 버린다.

재앙을 면하게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어서 공수를 준다.

■ 공 수

이 도당에 호영산 호대감 이렇게 잘 놀았으
니 아무쪼록 동네가 편안하고 방네가 해주마,
공수가 끝나면 호대감타령을 부른다.

호대감타령

장구 장단에 맞춰 대감타령과 같은 곡조로

부른다.(1992년 4월 문산 도당굿에서는 당사 호대감 역을 맡은 박수가 호대감 노는 데 너무 힘이 들어 타령을 하지 못했다.)

우리 욕심 많은 호대감
탐심 많은 호대감
우리 대감님 거동 봐라.
거들거리구 놀아보자.
나쁜 액운을 뺐었으니
편안하게두 도와주마
우리 대감이 어떤 대감이냐,
호대감두 내대감이다.
살롱대감두 내대감이다.

(이하생략)

호대감타령을 끝으로 호영산 호대감놀이를 모두 마친다.

옛날에는 호대감을 논 뒤 돼지 대가리와 떡, 나물 한 접시,술 한 잔을 차려서 바위 위에 올려놓으면 음식이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는 호랑이가 밤에 나타나 물어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호랑이 발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호영산 호대감놀이가 끝나면 모두 산에서 당으로 내려와 마당거리를 한 뒤 모든 곳을 끝마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산 도당굿은 다른 지역의 마을굿과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문산 도당이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원당이므로 당맞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또 호영산 호대감 놀이라는 굿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점에서 그 특색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호영산 호대감 놀이는 아무 도당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호환을 당했던 마을에서만 특별히 행하는 제의적(祭儀的) 놀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 놀이

는 신의 영감을 보이기 위해 무당이 온 산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희생으로 바친 개를 찾아내야 하므로 여간 까다롭지가 않으며,노련하고 능숙한 무당이 아니면 웬만한 사람이 와서는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호랑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영산 호대감 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호영산이라는 원한귀와 호대감이라는 신령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빼놓을 경우 동네가 뒤집힌다고 믿어 반드시 이 놀이를 한다고 한다.

물론 오늘날은 옛날처럼 격식을 갖추어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호랑이를 죽이고 또 호신령(虎神靈)에게 희생을 바쳐 대접하는 모의행위(模擬行爲)를 통해 호환을 막고 동네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신앙심에는 변함이 없다. 과거 그토록 무속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일제 강점기에도 문산 도당굿이 계속되었고, 1960년 전후로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복원하여 전승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산이라는 고장이 풍파가 잦았던 곳임을 시사해준다.

한편 본고에 전재(全載)한 호영산 호대감 놀이는 범굿(호탈굿)자료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알려진 범굿은 주로 동해안 지역에 한정되었는데, 이번에 서해안 지역의 범굿이라 할 수 있는 호영산 호대감 놀이를 처음 소개함으로써 해안과 밀접한 지역이라는 유사한 지리적 배경,호환의 방지라는 같은목적,그리고 무언극으로 연희되는 굿놀이라는 공통점 등을 바탕으로 동서 양 지역,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전역의 범굿을 살펴볼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이 놀이는 중부 지방에 드물게 남아 있는 범굿 형태로서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예술의 차원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본다.